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공존초대석

가나 대표 대한외국인,
샘 오취리 Sam Okyere

Vol.05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국가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매서워진 날씨가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해를 바쁘게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하반기, 결혼이민제도를 개선하여 결혼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와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외국 전문인력 초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개월까지 확대하는 장기 체류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질서 있는 이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관련 당국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편, 국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가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설렘과 희망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규 근

공존

Vol.050

〈공존〉 통권 제50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19년 12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2110-4019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씨네파트너스
Tel 02-336-7703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www.ses.go.kr

- 02 **에디터 메시지**
국가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04 **공존 초대석**
한국과 가나, 두 나라를 품고 세계로!
가나 대표 대한외국인, 샘 오취리 Sam Okyere
- 08 **공존 포커스**
제9회 한마음걷기축제 현장스케치
- 12 **행복드림을 찾아서**
재한외국인 아웃도어&봉사 커뮤니티,
CIK(Climbing In Korea)
- 16 **카드뉴스**
정책 고객의 불편,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 18 **정책가이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
- 21 **출입국 Q&A**
알아두면 유용한 출입국 상식
- 22 **친절 바이러스**
- 24 **출입국 탐방**
IOM 이민정책연구원
- 28 **출입국 뉴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소식
- 30 **공존이벤트**
영화예매권을 잡아라
- 31 **책으로 배우는 한국**
반세기를 넘어 계속될 이야기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한국과 가나, 두 나라를 품고 세계로!

가나 대표 대한외국인,
샘 오취리 Sam Okyere

전생이 존재한다면 분명 한국인이었거나, 삼신할머니가 실수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점지한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 10년간의 한국살이 끝에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나의 심장에 두 나라를 품은 청년의 눈은 어느 별보다 반짝였다. 글 김경주 사진 나우연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프리카인을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까.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이름을 알린 가나 대표, ‘쌘 오취리’. 그는 유창한 한국어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 시간에 예능계의 인기 외국인 스타로 떠올랐다. 꾸준히 가나를 알리며 한국에서 활동하던 그가 지난 여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DJ를 맡고 있는 tbs eFM 라디오 <Men on Air> 녹음 현장에서 만난 오취리 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줄지 전혀 예상 못했이라며 축스러운 듯 웃었다. “생각보다 크게 화제가 된 것 같아요. 영주권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무사히 취득해서 정말 기쁘죠. 제 가족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당연한 듯이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말해 웃음을 줬던 오취리 씨는 이제 진정한 ‘대한외국인’으로 거듭났다.

한국은 내게 첫사랑, 10년째 연애 중

언어도, 피부색도, 문화까지 다른 사람이 한국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다니. 물론 처음부터 한국이 친근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편견과 무지로 색안경을 쓴 몇몇 한국인들에게 상처받았고, 한국어가 서툴러 제대로 해명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들 덕에 한국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대학생할 내내 그의 곁에서 도움을 줬던 친구와의 인연과 스스럼없이 다가와 말을 걸어 주었던 한 아주머니와의 만남은 아직까지 오취리 씨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한국의 은근한 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론 한국 사회에 흑인이나 아프리카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싶은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대한 외국인, ‘쌘 오취리’로 성장했고, 그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었다. 오취리 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통해 한국이란 낯선 나라에 왔을 때부터 한국과의 운명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마치 첫사랑처럼. “한국과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첫사랑처럼 서툴고 투박하게 한국과 친해지는 과정을 지나, 지금은 오래된 연인이 성숙한 연애를 하듯 한국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거든요.” 권태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그의 한국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한국과 가나 사이에 무지개 다리를

오취리 씨는 한국을 생각하는 만큼 고국인 가나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다. 항상 가나를 마음 속에서 잊지 않고, 한국의 모습을 보며 가나와 가나 사람들의 발전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 교육자였던 할아버지가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물심양면 도우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고국인 가나에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고 싶다는 또 다른 꿈도 생긴 것이



다. “〈비정상회담〉에서 가나에 학교를 짓겠다고 말했는데, NGO단체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학교를 만들자고요. 꿈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져 놀랐고, 정말 감사했죠.” 크라우드 펀딩으로 약 5천명의 후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572학교’가 설립됐고, 현재는 제2의 ‘572학교’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귀띔해주었다.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제 이름의 한국어 발음을 따서 지은 학교인만큼 도서관에 한국어 책도 많이 비치했죠. 가나 학생들이 한국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요.”

고국인 가나를 방문할 때도 한국을 알리느라 쉴 틈이 없다. 한국에서 유명해진 가나 사람으로 가나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제는 친구들 역시 오취리 씨가 모임에 등장하면 한국사람 왔다고 장난스럽게 말을 건넌 정도로 한국대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나 사람들도 불과 몇 년 전까지 만해도 한국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제 얘기를 듣고 한국을 방문한 분들도 다들 이 곳을 좋아해서 뿌듯합니다.” 한국과 가나의 사이를 좁히고, 서로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미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뺨속까지, 마음 깊이 한국을 알고 싶어요

한국을 진심으로 대하는 오취리씨의 마음이 대중들에게 진실되게 와 닿았던 건 우리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춰졌기 때문일테다. 한국인도 잘 모르는 역사에 대해 박식한 그의 모습에 놀리는 장면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종종 포착된다. 그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더 깊이 한국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제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하루는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한국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죠.”

K-pop을 통해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해 환상을 가지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 오취리 씨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국에 오는 건 위험하다며 한국행을 결정하기 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한 몇몇 재한외국인들이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얻고 돈을 벌면서 한국 방송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며 “겉으로 보이는 인기만을 바라면 안된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요즘 시청자들 똑똑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진심이 아니라면 다 들통나요. 한국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시청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해요.”라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방송과 라디오, 각종 행사로 쉴 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과 가나, 두 나라 출신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것이다. “두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특별함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미국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한국과 가나를 함께 알리고 싶어요.” 진실하고 똑똑한 그이기에 미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을 한 이 청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 그를 지지하는 한국과 가나 팬들의 든든한 응원으로 세계에 두 나라를 알리는 빛나는 셀럽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9회 한마음걷기축제 현장스케치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에 오른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완연한 가을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는 한마음걷기축제가 열렸다.

긋은 날씨였던 지난 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는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과 색색 단풍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세계인의 축제임을 실감케 했다.

글 박지형 사진 김윤희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건강사회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한마음걷기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이 날은 유난히 파란 하늘과 노랑과 붉은 단풍이 함께 어우러져 진정한 만추(晩秋)를 만끽할 수 있었다. 국적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못 볼 가을 절경을 풍경 삼아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롭게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쾌청한 가을 하늘에 날려 보낸 꿈과 희망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하얗고 거대한 '희망의 풍선'이 준비됐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각자 소망하는 메시지를 적어 개막식과 함께 하늘로 솟아 오르는 희망 애드벌룬에 자신의 꿈을 실어 보냈다. 또 공식행사 외에 유학생 판소리, 댄스 공연 등 축하공연과 평화 광장에 설치된 부스에서 진행된 고충상담, 법률상담,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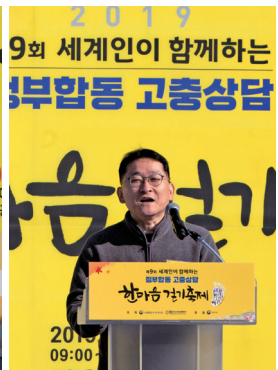
의 큰 호응을 얻었다.

휴일 이른 아침 9시.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참가자들은, 메인 광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참가등록을 마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가 마련한 한마음 소통카페에서 나눠주는 쿠키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경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펼치는 태권도 퍼포먼스를 즐겼다. 곧이어 행사의 메인 MC 김현욱 아나운서의 안내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참석한 관계자들은 희망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손흥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의 환영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축사가 끝나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이 이어졌고, 곧바로 치어리더 '아프리카'팀이 무대에 오르며 경쾌한 음악과 함께 식전공연이 시작됐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했던 들레길

평화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 들레길을 따라 걷는 3.8km 코스. 출발을 알리는 축포와 함께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신나게 발걸음을 옮겼다. 단풍이 수놓은 길을 지나 다리를 건너면 메타세콰이어



가 펼쳐진 길이 이어졌다.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커브길로 지루할 새 없는 산책 코스를, 참가자들은 이야기 꽃을 피우며 걷고 또 걷는다.

이번에도 여느 해처럼 어김없이 코스 사이마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었다. 첫 번째 포스트 미션은, 'KOREA를 온 몸으로 표현하기' 두 번째는 '홀짝을 맞춰 인증샷 찍기' 등 참가자들은 내 외국인인을 가리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축제를 즐겼다.

총총 걸음으로 한 시간 남짓 걸었을 무렵, 사람들은 어느새 골인지점에 도착하고 있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용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거나 광장에 마련된 세계 각국의 문화 체험 부스에서 시간을 보냈다. 사실 오늘 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걷기 보다 더 즐거운 건, 상암에서 만나는 세계여행 체험존이다.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거나 외국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낯선 놀이에 빠져들었다. 또 포토존에서 가족들, 프레임액자마임의 주인공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작년에도 부모님과 함께 걷기축제 행사에 참석했다는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 준영 군(11)은 “작년에는 비가 와서 전통놀이 체험을 잘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아빠랑 떡 매치기도 해보고, 동생이랑 킬링게임도 했는데 재미있었어요”라며 즐거워했다.

한마음으로 10들 축제를 기약하며

이밖에도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 정부합동 고충상담부스에는 외국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건강진료 및 상담도



진행됐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행사에 참여한 재한외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시시콜콜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고 만족스럽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참가자를 돕기 위해 7개국어의 통역이 가능하도록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인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팀 '한글'의 공연, K-POP 댄스그룹 '프로메사'의 압도적인 댄스로 행사무대는 절정에 달했다. 오늘 우연히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는 유학생 파티사예바 씨(26)는 “한국에서 이런 축제가 있는 줄 처음 알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다수 참가자들이 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올 즈음, 메인 무대에서는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막바지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러시아 쌍둥이 자매 가수 '알트레에 고티'의 감미로운 노래와 서울출입국·외국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경품 추첨 이벤트에서는 에어프라이어,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장고, TV 등이 상품으로 준비됐고 추첨에 참가한 다수의 내외국인이 당첨자로 뽑히는 행운을 만끽했다. 한마음으로 통합된 어울림의 축제, 한마음걷기축제는 내년 10주년 행사를 기약하며 환호의 박수로 힘차게 마무리됐다.



행복드림을 찾아서



산에서 찾은 나눔의 기쁨, 함께 하실래요?

재한외국인 아웃도어&봉사 커뮤니티, CIK(Climbing In Korea)

한국인과 재한외국인이 한국의 산을 오르며 봉사도 하는 커뮤니티 'CIK'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산행과 봉사, 조금은 어색한 조합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두 분야 모두 같이할 때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수많은 나라 중 대한민국에서 만나 취미를 공유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그들의 건강한 발걸음을 쫓아가 보았다.

글 김경주 사진 나우연



청명한 가을이 오롯이 느껴지는 주말 오후, CIK의 인왕산 산행에 동행했다. 이번 모임은 멤버들과 다음 달에 진행할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기도 해서 더욱 뜻 깊은 산행이었다. 한국인과 재한외국인 만나할 것없이 기존 멤버들은 서로의 근황을 묻고, 새로운 참가자와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선두에서 길을 안내하는 김 대표와 후미에서 멤버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니퍼 씨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산 중턱. 탁 트인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눈에 보이자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오늘 산행의 포인트는 산 정상에서 보는 노을! 다시 걸음을 재촉해 일몰시간에 딱 맞춰 정상에 도착했고, 가을빛을 담은 노을로 물든 서울 하늘을 마주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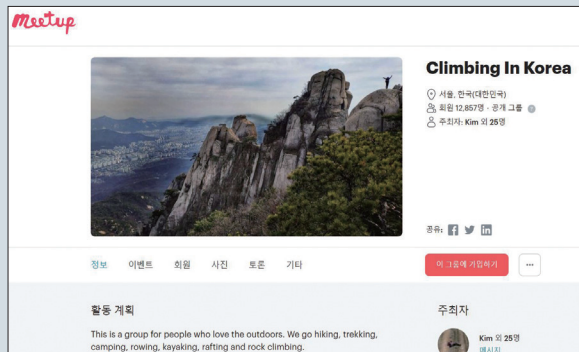
내국인과 재한외국인, 우리 함께 가요!

현재 CIK는 'Meetup' 플랫폼에 속한 한국 아웃도어 커뮤니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약 1만 2천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재한외국인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김성원 대표가 처음 CIK를 창단할 때만 해도 이렇게 활발히 운영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2008년경 김 대표가 외국인 지인들과 가볍게 시작한 등산 모임이었는데 'Meetup'에 커뮤니티 등록을 하면서 참가자가 늘기 시작했다.

10여년간 매주 빠짐없이 서울이나 근교의 산에 오르는 모임을 주최하고, 주기적으로 전국의 명산을 오르는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CIK. 그 중심축에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커뮤니티의 총책임자 자리를 맡고 있는 김성원 대표가 있다. 늘어난 참가자를 감당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회원들 중 오거나이저(Organizer)를 선발해 함께 운영하며 커뮤니티의 체계가 갖춰졌다. 오늘 산행의 주최자인 제니퍼 씨도 24명의 오거나이저 중

CIK 멤버가 되려면?

산행&봉사 커뮤니티에 관심이 생겼나요? CIK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Meetup' 앱에서 Climbing In Korea를 찾거나 웹사이트 주소(www.meetup.com/climbinginkorea)로 접속해 가입하고 예정되어 있는 활동에 참석여부를 알리면 된다.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혼자가 두렵다면 지인과 함께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편견 없는 열린 마음만 가지고 오면 CIK 멤버가 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난 것이다.





한명이다. 김 대표는 “CIK에서 좋은 사람들만 만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니퍼처럼 책임감 있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 지금껏 이 커뮤니티를 운영해올 수 있었죠.”라며 운영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직책을 맡고 모임을 주최해도 금전적 보상이 없기 때문에 오거나이저들은 멤버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산행 모임에 뿌리내린 ‘봉사’의 씨앗

CIK가 타 재한외국인 커뮤니티와 다른 점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소외계층과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봉사활동이 몸에 베어 있는 외국인 멤버들의 제안으로 2009년도에 연탄배달봉사를 한 것이 첫 시작이었다. “연탄이 신기한지 참가한 외국인들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저 역시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여건상 못할 때도 있지만 봉사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어요.” 김 대표는 연탄봉사 외에도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장애아동에게 카누잉, 나무 클라이밍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을 제공하고, 뜻이 있는 회원들과 NGO 단체 ‘کم패션’을 통해 어린이 4명을 후원하는 일도 하고 있다. 다음 봉사활동으로는 작년 연탄봉사 때 남은 봉사활동비용으로 취약계층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무 클라이밍 활동과 미군 군의관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CPR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 제니퍼 씨의 제안으로 태안 해변 트래킹을 하면서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기로 결정됐다. 사람이 자연을 누리는 만큼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제니퍼 씨의 생각이 CIK를 통해 실현된 것이다.

사실 CIK는 강제성이나 구속성이 크지 않은 커뮤니티다. 그만큼 들고 나는 사람이 많고 멤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없기에 봉사활동 역시 뜻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면 된다. 그러나 김 대표는 더 많은 멤버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봉사를 지속해 나가도록 1년에 4번, 정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봉사에 대한 의지를 다잡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라며 취재에 대한 소회를 밝혔고, 마지막으로 멤버들에게 사고 없는 안전한 산행에 대한 당부와 CIK 멤버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홍보해 주길 바란다는 작은 소망을 전했다. 재한외국인이 250만 명에 다다랐으나, 내국인과 재한외국인이 함께하는 봉사단체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CIK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소중한 단체임이 틀림없다. 김성원 대표를 비롯한 내국인 멤버와 한국을 사랑하는 재한외국인 멤버의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 사회에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정책고객의 불편,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1

결혼이민제도 개선



기존 결혼이민자(F-6)가 외국인등록시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하고 이후 체류기간 연장시 2년 또는 3년의 체류기간 부여

개선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시 1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인 3년의 체류기간 부여

2

혼인귀화 심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기존 국적업무 심사기간 중 혼인귀화의 경우 '자녀 유무'만을 고려해 판단(미성년 자녀 양육 시 약 10개월, 그 외의 경우 약 18개월 소요)

개선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인의 진정성 판단(실태조사 간소화 시 약 10개월, 그 외의 경우 약 18개월 소요)

3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인력 전자비자 발급



기존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 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비자 발급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고용 추천을 받은 경우도 전자비자 발급(비자발급 기간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

4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기존 · 외국인 교수 초빙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구분없이 동일하게 임용(예정)확인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서류 징구, · 급여 없는 방문교수 등의 형식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도 고용계약서 요구

개선 ·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경력증명서, 학위증 제출 면제, · 급여를 받지 않는 방문교수 등은 고용계약서 제출 면제

5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기존 대학교에서 외국인 강사 초청시 임금기준을 전년도 국민 총소득(GNI) 80% 이상(18년 기준 월 2,452,467원)으로 높게 책정

개선 시간당 강의로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대학 평균 단가(19년 1학기 국공립대 73,872원, 사립대 54,143원) 이상일 경우 허용

6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국내에서 취업 가능

개선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한시적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 가능한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출국’스톱!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시행

법무부는 그동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전국의 공항만을 이용해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2019년 10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법무부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강제적 집행을 지양하고, 인도적 차원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곧바로 공항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등 기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2019년 10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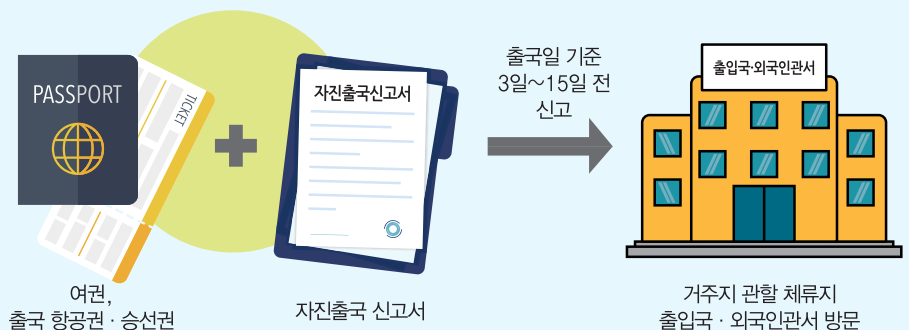
또한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 시행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함으로써 해당 항공편 시간을 맞추지 못해 출국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존에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원하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 시행 이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전에 공항이나 항만이 아니라 본인이 현재 체류 중인 지역을 관할하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후 심사를 거쳐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사전 신고 방법은?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15일(공휴일 포함) 전에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 자진출국 신고서를 소지하고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일 예시 : '19. 11. 27.(수) 출국하려는 경우 15일 전인 11. 12.(화)부터 신고 가능,
출국 3일(공휴일 제외) 전인 11. 22.(금)까지 신고해야 함



자진신고 서류 접수 후 절차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 서류를 접수한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고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와 범죄 경력과 수배 여부 사항 등을 조회한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출국명령서를 발급하고, 신고인은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 받은 후 탑승권을 발급받게 되며 출국 심사를 거쳐 출국하시면 됩니다.

자진출국 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수배 대상이 되어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의 건강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특별한사유가 발생하여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출발 예정의 공항 또는 항만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부서를 사전에 방문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Mini Interview

담당자 인터뷰(장기연 주무관)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의 기대효과는?

사전 신고제 시행으로 즉시 출국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사전 신고함에 따른 다소 불편함이 있겠으나, 출국 최소 3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으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심사를 받음으로써 공항만에서 심사가 지체되어 항공기 등을 놓치거나, 다른 법 위반 사항(하위초청, 위명여권 등)이 있더라도 미리 조치할 수 있어 출국 당일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고, 출국하기 3일 ~ 15일 전에 사전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 이후 출국할 때 까지 단속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출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범죄 수배자 적발 사례가 있는지?

사전신고제 시행 이후 자진신고 업무 처리과정에서 8명의 범죄 수배자를 적발하여 경찰에 신병인계 하였으며, 이중 3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은?

'사전 신고제'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입국

< 알아두면 유용한 출입국 상식 >

궁금해요 출입국
14세 미만자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주민등록이 된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센터는 자동출입국 홈페이지(www.se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대한민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는 한국에 입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출입국 시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는데 출국이 가능한가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여권 유효기간 내에 대한민국 출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별 국가별로 여권 잔여유효기간에 따른 출입국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출입국사실증명에 표기되는 날짜는 출입국심사 시간과 항공기 출발 시간 중 어떤 게 기준이 되나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해당 증명서에 기재되는 출국 또는 입국일자는 승객의 출국 또는 입국심사 시간을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궁금해요 출입국
외국인이 출국해 본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출국 때와 다른 여권인데 입국 시 관찰을까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고 입국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14일 이내 국내 출입국 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백재욱 님을 칭찬합니다

(7. 31, CHOI INSEOK STEPHEN / 10. 13, CUIJINGDONG)

백재욱 담당자님께서 친절하고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서 거소증명서 발급을 원활하게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리되는 기간과 출국일자가 빠듯했는데 거소신고가 잘 처리되었다고 직접 전화까지 주셔서 일정에 차질 없이 출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재욱 님 같은 분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좋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절 왕의 한마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외국인 민원인을 응대 하시지요?

입사하기 전, 이집트와 쿠웨이트 등에서 유학생생활을 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의 입장으로 해당국의 이민청에 방문 할 일이 종종 있었는데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생소한 행정처리절차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이민청에 방문하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갔었고, 별 탈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나오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던 기억이 납니다. 혹여나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낯선 곳에 방문한 외국인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어려울 지 생각해보며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기억과 다짐들을 돌이켜 보며 항상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으로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재욱_서울출입국·외국인청

Q. 민원업무를 수행하며 힘든 점과 보람이 있다면?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닌데 업무 특성 상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마무리 되는 일기에,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과 매일매일 일선에서 대화를 하며 업무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대화하는 법도 배우는 것 같아 좋습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 변경 신청을 할 때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 등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안내할 때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 상 불가능한 경우를

상세히 설명해드릴 때도 수긍하지 못하고 결국 민원을 제기할 때 힘듭니다. 규정 상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불친절과 연결시킬 때 마음이 아픕니다.

반면, 세계 찾아온 외국인분들이 업무를 다 처리하고 떠나기 전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를 건넬 때 큰 보람이 됩니다.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수고했다고 한 마디 해주시며 받을 수 없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줍게 꿀 하나를 놓고 종종 떠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들의 사람들을 매일 매일 접하며 사용하는 영어, 그리고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아랍어의 실력이 녹슬지 않고 유지 될 수 있고, 항상 외국인들을 만나며 그 누구보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또한 보람찬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종로출장소 서유정 님을 응원합니다 (10. 1. Dalaijargal Davaajargal)

저는 한국에 유학 온 지 10년이 된 몽골학생입니다. 지난 9월 비자 변경을 위해 세종로출장소를 방문했을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부터 해주시고 비자 변경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친절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유정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 절 왕 의 한 마 디

Q. 세종로는 특히 민원이 바쁜 곳인데, 특징이 있다면?

세종로출장소는 공공기관, 재외공관, 기업, 대학 등이 위치한 종로구와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부터 G까지 다양한 체류자격 및 국적을 가진 민원인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Q. 유학생 민원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고 현지 이민청을 방문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성적이 낮아서 연장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허가 없이 시작하거나, 주소 변경, 여권 변경 시 출입국에 신고해야함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문화와 법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국어 및 전공공부를 한다면 더 즐거운 한국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아, 또한 전자민원, 단체접수 등의 방법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유정_세종로출장소

울산출입국사무소 강윤지 님 감사합니다 (8. 16. 김윤찬)

저희 어머니께서 울산출입국사무소를 자주 방문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번거로운 일도 친절히 도와주고,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도와준다고요. 많은 민원인을 응대하기 때문에 피곤하실텐데, 강윤지 님의 얘기를 들을 때면 이런 분이 적극행정의 모범이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윤지 님께 항상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 절 왕 의 한 마 디

Q.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민원이 많은데, 힘든 점은 없는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울산에는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무소 별로 언어를 잘하시는 직원 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셔서 통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Q. 외국인 고용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루에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가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업무를 보러 오신 외국인 고용주 혹은 업체 직원 분들께서 “식사는 하셨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주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분들께서 감사 인사를 건네 올 때면, 힘들고 지쳤던 저의 업무보다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 없이 정직하고 청렴한 고용과 따뜻한 말 한마디만 오고 간다면 서로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윤지_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정책연구 10년간의 빛나는 성과

2019년 10월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48만 명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850,705명의 약 4.8%에 해당하며,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수 7위인 대구광역시보다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은 개인의 인생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일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법무부와 국제이주기구(IOM)와의 협정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이민정책연구원')이 개원했다. 올해로서 10주년을 맞은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22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민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일반인에게는 이민정책연구원이 다소 생소하겠지만 10여년 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에게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

다. “체류외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연구원이 참여했죠. 방대한 기초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이민정책의 기본 뼈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사 시 관련 문항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는 이민정책 연구기관이 많지 않고 국내 역시 이민정책 연구가 전무했는데 이 분야의 전문 인프라를 구축했고, 국외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로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적 인지도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연구사업&교육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이민정책’이라고 하면 출입국관리 행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민정책’은 이민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변화를 다루는 넓은 분야다. 이민정책연구원에는 행정학, 경제학,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위해 IOM 이민정책연구원

아직까지 '이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국외로 나가는 이민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을 먼저 떠올려야 할 때가 다가왔다.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선주민들과 잘 살아가도록,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이다.

글 김경주 사진 나우연





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전공과 연관된 이민정책연구를 진행한다. 유학생 체류 실태, 난민 심사제도 연구,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방안 연구, 체류 외국인 노동시장 연구, 이민에 대한 국민인식 연구, 국내 가족이민 연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더욱 전문적인 이민법 및 관련 행정법 연구와 외국 선례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뤄진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정책연구 외에도, 이민정책에 대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

한 이해가 높아져야 현장의 실무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민·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어 공무원 교육 시 만족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연구 후진 양성을 위해 매년 대학원생을 초청해 이민정책 연구 세미나를 열고 있다. 정기선 연구원장은 후진 양성에 특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 국가 간 인구 이동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짐에 따라 이민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민정책연구가 더 활발해져야 우

국민과 재한외국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MIGRATION POLICY RESEARCH & TRAINING FOR MUTUAL BENEFIT





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원들은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두 분야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연구원들의 일상은? 바쁨, 바쁨, 바쁨

이민정책연구원은 서른 명 안팎의 인원이 함께하고 있다. 진행하는 사업에 비해 연구인력이 부족한 편이

라 각자의 연구와 업무에 몰두하다 보면 점심시간 외에는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라며 연구원에 합류한지 1년이 갓 지난 행정학 박사, 유민이 부연구위원은 너스레웃음을 지었다. “다들 정말 바쁘세요. 그래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여쭙보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을 부탁드릴 때 본인 일처럼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서로 협력하는 연구원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유 연구위원. 특히 점심을 먹으며 선배 연구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연구에 필요한 노하우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연구위원들의 가장 큰 보람은 역시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었을 때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섬세하게 정책을 입안해야 하기에,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민자와 선주민에게 꼭 필요한 이민정책을 위해 열심히 연구에 정진하는, 이민정책연구원의 본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의미 있는 성과가 분명 쌓여 있을 것이다.

이민자도 단지 이웃일 뿐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인

Mini Interview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어느덧 우리 이민정책연구원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정책 연구의 기틀을 잡고 아시아의 대표 이민정책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연구원이 할 일이 점점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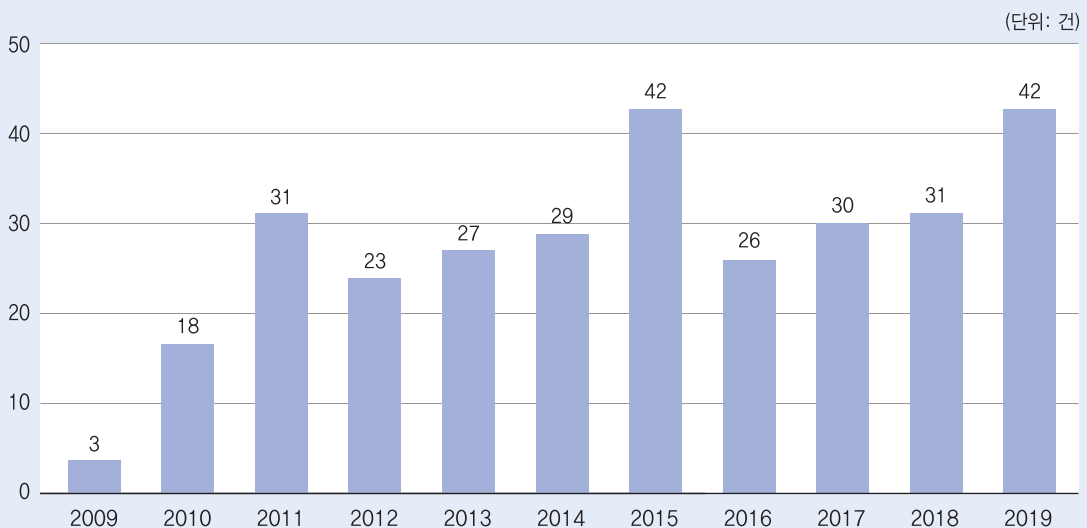
중은 크게 다양해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관광객을 대하는 마음과 우리 사회에서 함께 마주치며 생활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기에 찬반이 나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정기선 연구원장은 ‘이민’은 막기 어려운 세계적 흐름이기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민자를 배척하기보다는 이민자와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익 증대를 위해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에 ‘이민’은 막기 어려운 세계적 흐름이라고 봐요. 인종, 언어, 피부색으로 편견을 갖지 말고 ‘이민자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사는 이웃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주민도 이주민도 같은 사람이에요. 서로 배려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일이겠지만, 이민정책연구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연구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으로 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면 이민자를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사회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지나 온 10년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10년을 향해 도약을 준비하는 이민정책연구원의 발걸음을 응원해본다.

한눈에 보는 이민정책연구원 통계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실적(2009~2019년)



K.I.S. CALENDAR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7월 22일,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 총 5개 협력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하여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모임입니다. (회원도시 :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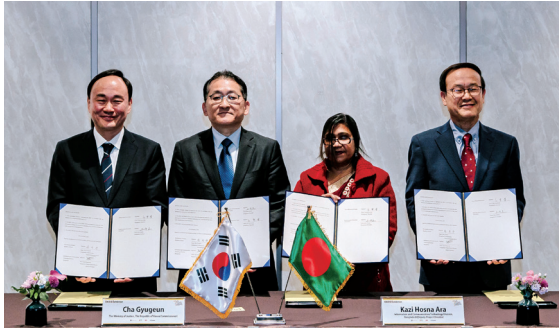
법무부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11월 14일,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양 기관은 △이민행정에 관한 공동연구, △연 1회 정기 포럼 개최, △이민행정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상호 자문 및 협력 △이민행정 분야의 인적교류 및 교육지원 등을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귀화자 20만 명 기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법무부는 11월 2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우리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2019년 11월, 2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여 20만 번째 귀화자 챔사이통 크리스타 한양대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11년에 10만 번째로 국적을 취득한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후배 귀화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양해각서(MOU) 체결



법무부는 11월 27일, 방글라데시 정부 위탁 「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방글라데시 정보통신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와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글라데시 우수 인재의 창업지원 및 기술창업 교류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기술창업 비자 신속 발급,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술지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인재선발 등 사업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공동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대책으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개정안 요지 :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에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한국-태국, 불법체류·취업 방지 양해각서(MOU) 체결

법무부는 11월 25일, 태국 노동부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퀴즈 풀고, 영화 보고

유익한 정책 정보는 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 10매를 드립니다

응모기간 **12월 24일 ~ 2020년 1월 13일**

응모 시 성명, 연락처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세요.
(미제출시 자동 탈락)

상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하여 총 10매의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발표 2020년 1월 1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참여방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퀴즈 확인 후

메일로 정답 보내기

kwakes35@korea.kr

이달의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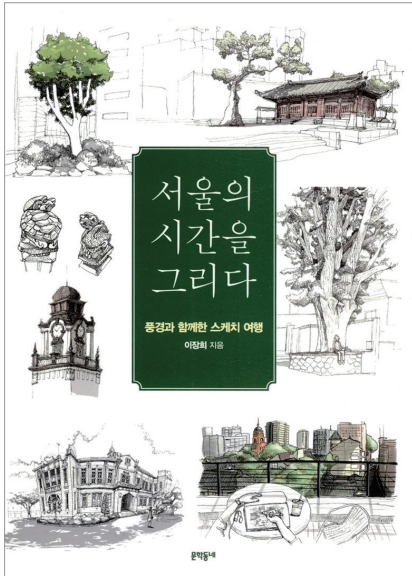
- 1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외국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 2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시 몇 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까요?
- 3 새롭게 신설되는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은 최대 몇 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을까요?
- 4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를 할 경우 출국일 기준 며칠 전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 5 국민은 몇 세부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난호 퀴즈 정답

- 1 등록외국인이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출입국 기관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며칠 이내로 신고해야 할까요? **14일**
- 2 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 받아, 온라인으로 여권정보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어느 홈페이지를 이용할까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3 등록외국인이 공항·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부터 일까요? **17세**
- 4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후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 본국에 다녀와야 할 경우 출입국기관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5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외국인은 비자연장이 몇 개월 이내로 제한될까요? **6개월**

당첨자

- 김문○ (010-3701-****)
- DINH THI T○○○ (010-3103-****)
- 강하○ (010-9173-****)
- 이하○ (010-2181-****)
- PRASTYO RENDY A○○○○○○○○○○ (010-5068-****)



반세기를 넘어 계속될 이야기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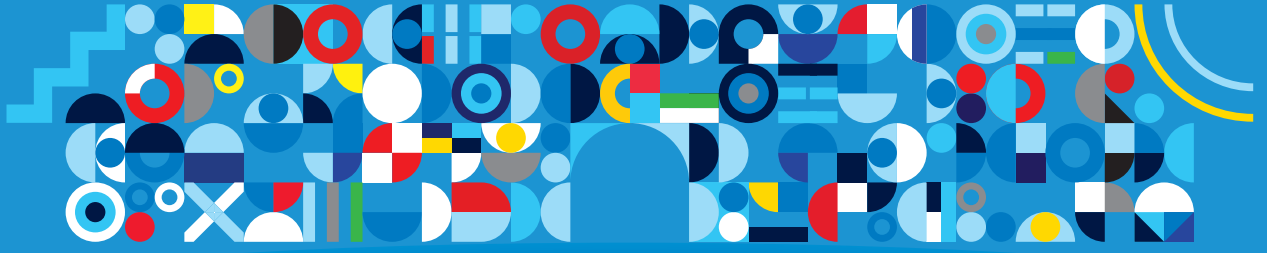
짜릿하고 화려한 도시 서울. 무심코 지나치던 이 도시에 가려져있는 600년 역사를 짧은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책이 있다. 서울이 품은 스토리에 귀 기울여 온 이장희 작가는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역사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서울 이야기를 그렸다. 섬세한 일러스트로 서울 곳곳의 풍경과 역사적 정보를 곁들인 짧은 이야기가 소소하지만 아름답게 펼쳐진다.

“서울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숙제처럼 남아 있기에 내게 서울은 끊임 없는 탐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자기가 태어난, 혹은 자기가 살아가는 장소에 대해 알아간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의미를 위해 서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 시작에서 이 책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재출간될 기회가 생겨 더없이 기쁜 마음이다”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이장희 작가가 개정 증보판을 펴내며 쓴 글이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60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지금은 세계의 도시가 된 서울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등의 격변을 거치며 역사도시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고층 건물이 뿔뿔이 들어섰지만,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친 그 이면에 옛 건물 그리고 옛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로새겨져 있다. 이장희 작가는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 비껴가 있어 먼지 쌓인 채 잠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서울의 모습을 섬세한 필치의 스케치로 되살려낸다.

권율, 김중서, 이항, 정도전 등 우리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의 생가나 몇 백 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왔지만 동네 주민들조차 그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딜쿠샤 은행나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체국 건물, 김구 선생이 생을 마감한 경교장 등... 작가는 서울의 부각되지 않았던 색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도, 서울을 여행하는 외국인도 모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서울의 600년 시간 여행이 펼쳐진다.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 저자 이장희 | 퍼낸곳 문학동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년 11월 25~26일 | 부산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11월 25~26일,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11월 27일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약 1,600억불(수출 약 1,000억불, 수입 약 600억불) 규모로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 지역입니다.

한국-태국, 불법체류·취업 방지 양해각서(MOU) 체결

● 법무부와 태국 노동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11. 2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정상에 참석한 가운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수창 폰차이 워셋꾼 태국 노동부 고용국장이 서명하여 협력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 국가는,

- 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해 노력 및 협력을 증진하고,
 - ② 각 국민들의 불법해외취업 방지를 위해 노력 및 이와 관련된 인식제고 캠페인 진행 등 협력을 증진하며,
 - ③ 대한민국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에게 불법 직업소개소 및 대한민국 내 불법으로 일하거나 체류하는 태국인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 ④ 태국 노동부는 대한민국 법무부에게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 또는 취업이 의심되는 태국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국은 인적교류의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양국의 법령과 규칙을 존중하는 성숙한 이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 2018년 양국간 인적 교류 규모는
약 237만명(한-태 약 180만명, 태-한 : 약 57만명)

